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KOFIH Letter

Autumn 2019 Vol.50

www.kofih.org

라오스에 찾아온 아름다운 기적



신남방 국가 보건의료 ODA사업

KOFIH는 신남방 국가의
보건의료 개발협력사업 개발 및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발전에 앞장서며
신남방 국가에 건강한 웃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KOFIH Letter

Autumn 2019 Vol.50
www.kofih.org



발행일 2019년 11월 06일
정기간행물신고번호 서울 중 바 00157
재단발행자등록번호 정가-6-2019-1

발행인 추무진 | 편집인 최원일 | 발행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주소 0453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 재능교육빌딩 6, 7층 | 전화 02-3396-9700
기획·편집 KOFIH 경영기획부 02-3396-9830 | 취재·디자인·제작 이팝 02-514-7567

웹진



발행에 도움을 주신 보건복지부 및 보건의료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간으로 발행되는 [KOFIH Letter]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Contents

2019 KOFIH PROJECT MAP	04	KOFIH의 주요 사업 현황을 나타내는 사업지도
KOFIH LETTER	06	더 많은 아세안 국가들과 대화와 협력의 길을 넓혀겠습니다

Special Theme — 숫자로 만나다!

신남방 국가 토크보기	08	신남방 국가에서 활약하는 KOFIH의 발걸음
Global Report	10	한-아세안, 함께하는 엔진으로
KOFIH 특파원	12	KOFIH와 함께 반짝이는 신남방 국가 다섯 개의 별
함께 그리고 멀리	14	희망으로 다가온 선물 같은 삶 - 라오스-이종욱펠로우십 10주년 기념 포럼&국립아동병원 소아암 완치 기념 행사
리멤버 포에버	18	열정과 정성으로 새길을 열다 - 미얀마 1차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을 위한 현장 24시
신남방 미식로드	20	건강한 삶을 키워내는 진심이 달다 - 캄보디아 '통합모자보건증진사업'
열정 36.5°C	22	'햇해 햇해' 다채로운 미식 천국 - 해외 사무소에서 추천하는 아세안 별미
KOFIH WAY	24	1. 2019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 최고위과정 환영식 2.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모자보건 관계자 국내 초청 워크숍
	28	신남방 국가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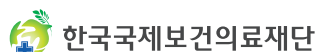
KOFIH NEWS	30	함께 꿈꾸고 뜨겁게 달리는 2019 KOFIH - KOFIH의 주요 동향과 이슈
독자의 소리	35	함께 만드는 KOFIH Letter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Cover story

신남방 국가의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삶의 희망을 선물하겠습니다.

최근 질병을 완치한 시바이(왼쪽)와 타누는 새 생명을 얻고, 희망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는 아픔도 슬픔도 없는 일상이 아이들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아이들의 환한 웃음을 가슴에 새기고 KOFIH는 오늘도 사랑의 손길, 생명의 손길을 전합니다. 신남방 국가의 모든 곳이 더 건강하고 활기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 북한, 재외 동포 및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이를 통하여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의거 2004년에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단위: 백만 원)



모자보건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



응급의료체계
강화사업



건강보험 정책
컨설팅 사업



의료기기 관리운영체계
구축사업



결핵 등 감염병
관리사업



민관협력사업



병원운영
컨설팅 사업





2019 KOFIH PROJECT MAP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06, the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KOFIH) has implemented various projects dedicated to the betterment of health and medical systems and bolster capacities for the people in partner countries.

(Unit: KRW million)

더 많은 아세안 국가들과 대화와 협력의 길을 넓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OFIH Letter 독자 여러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추무진입니다.

어느덧 선선해진 날씨가 결실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립니다.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하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상반기를 열심히 달려온 재단도 KOFIH Letter 세 번째 특집호를 구성하며 지난 시간을 돌이켜봅니다. 저 역시도 작년 9월 11일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지난달 취임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간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 덕분에 재단은 개발도상국가, 북한, 재외동포,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 해외재난 긴급구호, 이종욱 기념사업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는 태국, 미얀마, 라오스를 끝으로 신남방정책 이후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순방을 마쳤습니다. 다가오는 11월 23일부터 3일간은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를 계기로 재단도 지난 10여 년간의 ODA 협력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원방향을 모색하는 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기간에는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아세안국가 관계자 및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신남방 국가를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ODA의 성과와 결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KOFIH Letter도 신남방 국가 보건의료 ODA 특집편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 우리나라는 많이 닮았습니다. 올해는 이들 국가들과 대화 관계를 수립한지 30주년을 맞이한 해이자, 우리나라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식민지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났으며, 냉전 시대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과 자존을 지키며 성장한 역사와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메콩강을 낀 신남방 국가들과의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해 상호 존중과 이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한-메콩 평화 번영 세미나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 사업 이해를 돕고, 주한 아시아 대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9월엔 라오스 국립아동병원 소아암 완치 기념 행사를 통해 12년간의 노력의 성과를 엿보고, 라오스-이종욱펠로우십 10주년 기념 포럼을 마련하여 그간의 보건의료 인력양성의 결실과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쏟기도 했습니다. 또한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3개국의 모자보건사업 관계자들을 모시고 경험 공유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한-메콩 비전을 토대로 발전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공동 번영을 위해 재단이 달려온 지난 시간을 전 국민과 되돌아 보기 위해 신남방 보건의료 ODA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를 기획·제작하여 11월 중에 공영방송에서 방영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기간 중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아세안국가들과 대화와 협력의 길을 넓히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더욱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처럼 재단은 원조를 넘어 상생의 파트너로서 함께 나아갈 미래를 위해 신남방 국가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을 때 재단의 성과와 노력이 온전히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추 무진

숫자로 만나다! — 신남방 국가에서 활약하는 KOFIH의 발걸음



01 미얀마

- 1 개** _ 추진사업: 양곤주 1차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
- 6 년** _ 사업기간: 2011년~2021년
- 1 개** _ 수혜지역: 양곤
- 27 만명** _ 수혜대상
- 59 명** _ 2007년~2018년 이종욱펠로우십 연수생



02 라오스

- 4 개** _ 추진사업: 모자보건중심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 의료기기 관리운영체계 강화사업, 국립의과대학병원 운영관리 컨설팅사업, 감염병 진단 및 검역체계 구축사업
- 14 년** _ 사업기간: 2010년~2023년
- 18 개** _ 수혜지역: 전 지역의 18개도
- 53 만명** _ 수혜대상
- 159 명** _ 2007년~2018년 이종욱펠로우십 연수생



03 캄보디아

- 1 개** _ 추진사업: 통합모자보건 증진사업
- 11 년** _ 사업기간: 2011년~2021년
- 3 개** _ 수혜지역: 바탐방, 뽏삿, 파일린
- 170 만명** _ 수혜대상
- 58 명** _ 2007년~2018년 이종욱펠로우십 연수생

국가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적 가치 추구에 대한 지구촌의 관심과 요구가 점차 증가하는 요즘, 세계 곳곳에서 원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람’과 ‘사회’의 건강함이다. 이에 KOFIH는 신남방 국가 국민 건강을 위한 힘찬 활동들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사회 전체의 선순환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KOFIH의 값진 성과를 숫자로 정리했다.



04 베트남

- 2 개** _ 추진사업: 의료시설 건립운영 유무상 연계사업, 의료시설 운영관리 및 의료기기 컨설팅 사업
- 3 년** _ 사업기간: 2019년~2021년
- 5 개** _ 수혜지역: 닥농성, 라이짜우성, 라오까이성, 옌바이성, 다낭시
- 377 만명** _ 수혜대상
- 41 명** _ 2007년~2018년 이종욱펠로우십 연수생



05 필리핀

- 2 개** _ 추진사업: 팔라완주 결핵관리 역량강화 사후관리사업, 메트로 마닐라 도시근지역 건강증진사업
- 5 년** _ 사업기간: 2017년~2021년
- 2 개** _ 수혜지역: 팔라완, 마닐라
- 2 만명** _ 수혜대상
- 10 명** _ 2007년~2018년 이종욱펠로우십 연수생

| 2019년 신남방 국가 보건의료 ODA |
5개국, 10개 사업, 총 82억 원 규모

| 2007년~2018년 이종욱펠로우십 연수생 수 |
총 840명 중 신남방 국가 343명



한-아세안, 함께하는 엔진으로



글. 이혁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우리 정부는 한-아세안 관계가 미래 국익에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남방정책'을 표방, 아세안과 한 단계 높은 관계 발전을 추구해왔다. 소위 4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과의 관계는 외교·경제 부문에서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 이들 나라의 '자국중심주의' 정책이 대외관계에도 그대로 표출됨으로써 한국 외교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또한 강대국의 이해가 교차하고 충돌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아세안의 존재감은 최근 미·중 간의 문명사적 경쟁 구도 속에서 더욱 증대된다. 아세안과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고양시켜 한국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점에서, 신남방정책은 대외정책의 전략적 기틀이 되고 있다.



다양성 속의 조화와 단합을 지향하는 아세안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동남아 지역의 10개국(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브루나이,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으로 구성된 국가연합이다.

아세안은 1967년 동남아시아 5개국(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을 시작으로 이 지역의 협력과 단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 후 10개국으로 늘어난 이 조직은 단지 동남아 지역뿐 아니라 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긍정적 힘의 역할을 지혜롭게 수행해오고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ASEAN+3(한·중·일)정상회의, EAS(동아시아정상회의: 한·중·일, 미국, 러시아, 인도 등 강대국 참석),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북한도 참석) 등을 통해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 이 지역과 세계의 안정적 질서 형성을 위해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아세안의 인구는 6.5억, GDP(국내총생산)는 \$2.9조(1인당 GDP \$4,444)로서 싱가포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이 신흥개발도상국이지만,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는 의미도 된다.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단일 가치를 추구하는 지역연합이다. 반면, 아세안은 다양한 정치체제, 경제발전단계, 종교, 인종 등으로 구성된 국가군이기에 때문에 그 다양성을 존중하고, 나아가 지역 전체의 평화와 발전을 추구한다는 이념과 정신하에 움직이고 있다. EU가 하나의 가치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근년 들어 회원국 간에 갈등과 분열이 심화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아세안은 점진적이지만 꾸준한 협력과 통합의 과정을 밟고 있다.

아세안은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세계적인 관광지가 많다. 다낭, 푸켓, 보라카이, 발리, 앙코르와트, 바간, 루앙프라방, 싱가포르, 탕부롱, 코타키나발루 등을 위시하여 한국인에게도 익숙한 아름다운 자연과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넘치는 지역이다.



KOREA



BRUNEI



CAMBODIA



한-아세안, 이웃이자 친구이자 동반자

올해는 한국이 아세안과의 대화관계를 수립한 지 30주년이며, 한-아세안센터(한국과 아세안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양측 간 합의로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가 설립 1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지난 30년간 한국과 아세안 관계는 모든 분야에서 그야말로 경이적인 발전을 지속해왔다. 또한 과정은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의 성장의 과정과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한-아세안이 대화관계를 수립한 1989년에 양측 간 교역액은 72억 달러였으나, 2018년에는 1,600억 달러로 도약했고, 한국의 1인당 GDP도 5,700달러에서 30,000달러를 넘어섰다.

2018년 통계 기준,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의 수출대상 지역이 되었으며, 미국, EU에 이어 제3의 투자대상지역이 되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세운 스마트폰 공장에서 전체 생산량의 반이 넘는 1억 5천만 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제조된 삼성전자 제품이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놀라운 일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의 건설기업들도 아세안 각국의 빌딩,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여 아세안의 인프라 증강에 큰 기여를 해왔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 호텔, 쿠알라룸푸르의 페트로나스 트윈빌딩, 하노이의 랜드마크 빌딩 등은 그 도시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어 있다. 한류가 가장 넓고 깊게 사랑받고 뿌리내린 지역도 단연 아세안이다. 음악, 드라마, 영화뿐 아니라, 화장품, 패션, 음식 등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많은 분야에서 한류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로 정착됐다. 이제 한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여행하는 지역도 아세안이다. 2018년에 900만 명에 달하는 한국인이 아세안 10개국을 여행했고 250만의 아세안인들이 한국을 찾았다. 아세안 여행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아세안의 명승지뿐 아니라 아세안 사람, 사회, 문화, 음식 등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이것이 아세안

사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진다. 한국의 어느 지역에서도 베트남 쌀국수 식당을 비롯한 다양한 아세안 음식점에서 아세안 여행의 멋진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에 정주하여 근로자, 다문화가정, 유학생 등으로 생활하고 있는 아세안인 공동체가 60만 명, 아세안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한국인들도 36만 명에 이른다.

아세안과 한국이 유사한 역사적 경험, 즉 외세의 침략과 지배를 겪었다는 사실, 그리고 양측 모두 지역이나 세계를 지배하려는 패권적 야욕이 없다는 점도 양 국민들을 서로 가깝게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식민지 지배와 전쟁의 비극을 경험한 한국이 짧은 기간 내에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은 비슷한 고난의 역사를 공유하는 많은 국가들에 큰 희망을 주고 있으며, 특히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형 성장모델을 배우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이유다.

이제 아세안에 더 가까이 다가가자

아세안과의 관계 증진은 정부와 기업만의 몫이 아니다. 정부가 '한-아세안' 관계의 정책적·전략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이 아세안 국가와 왕성한 교역이나 투자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아세안 국민들에게 한국 사회와 국민들에 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여러 나라에서 아세안 국민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느낀 점은 아세안 국민들 대부분 겸손하고 친절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근면한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행여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 쉬운 우월의식과 교만함을 버리고, 아세안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아세안을 존경하며 아세안과 함께 번영하는 한-아세안 공동체를 향해 노력해 나가려는 자세와 열정을 가지는 것이 시대적 요청임을 거듭 강조한다. 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올해가 '아세안의 해', '한-아세안의 해'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INDONESIA



LAOS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VIETNAM

‘상생, 평화, 사람’을 향한 걸음걸음

KOFIH와 함께 반짝이는 신남방 국가

다섯개의 별

신남방 국가의 많은 나라는 우리가 그렇듯 식민지의 경험, 가난, 전쟁 등을 겪으면서 상처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밝고 힘차게 변해가는 중이다. 그 변화에는 KOFIH의 역할도 든든히 한몫한다. 정부의 신남방 정책 국가에 해당하는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에서 KOFIH는 더 나은 보건의료 환경과 건강한 미래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걸을 지키고 있다. 공익적 가치에 기반한 보건의료분야의 국제협력 확대에 힘쓰는 KOFIH와 더불어 건강하게 성장 중인 신남방 국가 다섯 나라를 소개한다.



한국과 속 빼닮은 미얀마

식민지 역사, 군부 독재, 민주화 항쟁, 인구 규모, 뜨거운 교육열까지 한국과 비슷한 나라다. 또한, 미얀마는 국민의 약 90%가 불교 신자일 정도로 불교는 이들의 정신적 근간을 이루고 있다.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에 차가 유명하고, 황금의 땅이라고 불릴 정도로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 미얀마에서 KOFIH는?

「양곤주의 1차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지역사회 기초 보건의료 인식 제고와 보건의료 증진에 적극적이다.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개보수와 의료 기자재 지원은 물론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 보건인력 교육 및 훈련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매력적인 여행지로 떠오르는 라오스

동남아시아 한복판에 위치한 나라로 산과 물이 풍부한 나라이다. 긴 내전으로 고통받았지만, 아세안의 물류 허브로 성장하고 있다. 고대 타이족의 한 일파인 라오족의 나라로, 독실한 불교국가이기도 하다. 자연 친화적이며, 역사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관광과 문화의 천국으로 떠오르며 매력적인 여행지로 인정받고 있다.

● 라오스에서 KOFIH는?

대표적으로 북동부지역에서 「모자보건중심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보건의료체계 관리능력 강화에 힘쓰고, 보건시설 장비 및 인력 역량 강화 등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나선다. 또한 지역사회 보건인식 제고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 중이다. 그 외에도 의료가기 관리운영체계 강화사업, 국립의과대학병원 운영관리 컨설팅사업, 감염병 진단 및 검역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 풍부한 자원의 베트남

인도차이나 동쪽 끝에 있는 베트남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 지배에서 벗어난 후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 후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 커피, 쌀, 후추 수출이 세계 1, 2위를 다투고, 석유를 수출한다. 중국, 일본, 한국과의 교류로 공업 부문이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다.

● 베트남에서 KOFIH는?

「의료시설 건립운영 유무상 연계사업」으로 닥농성 및 라이짜우성 종합병원의 의료기기 수리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보건인력 및 의료기기 사용자 역량 강화와 의료기기 폐기절차 수립 컨설팅을 지원한다.

동서양의 만남 필리핀

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은 지진과 화산, 태풍 피해 등이 잦지만 무려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다. 아시아에 있지만 대부분 사람이 가톨릭교를 믿는 특이한 문화를 지녔다. 언어도 타갈로그어(필리핀어)와 영어를 같이 쓰고 있다. 과거에 300년 넘게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았고 이후 40년간 미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다.

● 필리핀에서 KOFIH는?

팔라완주 거점병원중심으로 결핵관리 역량강화 사후관리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수도인 마닐라 도시 빈곤 지역과 인근학교를 중심으로 건강 인식·행동 개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도시 빈곤 지역의 구성원과 지역사회 전반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로써 필리핀 정부 보건분야 정책 이행에 기여하고 있다.

찬란한 문화 유적과 신화적 배경의 캄보디아

한반도의 약 80%의 크기에, 1,0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캄보디아는 연 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젊음의 나라이다. 9세기에서 14세기에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이름 높은 앙코르와트를 자랑하는 크메르 문명의 중심이기도 하다. 인도의 영향을 수용하며 성장한 나라로 힌두사상에 기반한 종교적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 캄보디아에서 KOFIH는?

「통합 모자보건 증진사업」으로 비탐방, 파일린, 뽏삿 도의 모자보건 서비스 제공과 질 개선에 힘쓴다. 지역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보건 포럼을 개최하는 등 주민 참여 독려에 나섰고, 조산사 강사 및 교육생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정부 관리 능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인다.

라오스-

이종욱펠로우십 & 국립아동병원
10주년 기념 포럼 & 소아암 완치 기념 행사

희망으로 다가온 선물 같은 삶

시작을 주저했다면 분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테다.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롯이 빛을 발하도록 다듬어내는 손길. KOFIH의 자신만만한 행보는 비로소 어린 생명의 존엄을 지켜냈다.

그렇다. 라오스는 KOFIH와 함께 진화하고 있다. 어제보다 더 건강해진 오늘, 새 생명이 피어날 내일을 희망하며.



1. 소아암 완치 어린이 타누(가운데)와 타누의 어머니 깨오 씨(왼쪽), 서울대 신희영 교수(오른쪽)
2. 라오스 국립아동병원 소아암 완치 기념 행사에서 레이코 여사의 축하
3. 라오스 국립아동병원 소아과 의사 월라폰 빠이미니의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 연수 소감 발표



고민하고 행하는 나눔의 본질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방법, 그 치열한 고민은 늘 사람으로 귀결된다. 나에게서 너에게로, 이어 우리에게로 확장되는 이로운 가치는 넘침도 모자람도 없이 딱 알맞게 제자리를 찾기 마련이다. 퍼줄을 완성에 가깝게 맞춰가듯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래의 큰 바탕을 입을 줄 알아야겠고, 하나하나가 지닌 세부적 특성 또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는 KOFIH가 ODA사업 진행의 효율을 높이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여전히 순수를 간직한 라오스. KOFIH는 이곳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결핍으로 더 이상 균열되지 않도록 보듬어 안는 데 집중한다. 차분하고도 긴, 그럼에도 명료한 호흡으로. 덕분에 사람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이전보다 분명 높아졌다. 보건의료 체계가 탄탄하게 갖추어졌고, 감염병 진단과 검역체계가 구축됐으며, 국립의과대학병원의 운영 역량도 높아졌으니까. 진심 어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KOFIH의 발자취가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변화는 훨씬 드라마틱하다. 2014년, 국립아동병원에 라오스 최초로 소아암 병동을 개소한 이후 최근 '백혈병 완치'라는 타이틀을 또 하나 더함으로써 성과의 방점을 찍은 것. 지난 9월에 있었던 라오스 출장은 이처럼 달라진 라오스를 제대로 각인시킨 기회였다. 특히 9월 5일, 라오스 국립아동병원에서 열린 이종욱펠로우십 10주년 기념 행사에는 대한민국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 라오스 캄무 여사, 故 이종욱 사무총장의 아내인 레이코 여사, KOFIH 최원일 사무총장, 서울대 신희영 교수 등이 참석해 의료진들의 활약과 그동안 이뤄낸 KOFIH의 성과를 공유하고 축하했다.

소아암 완치, 라오스 최초의 기록

주변 국가에 비해 라오스의 영유아 사망률은 높은 편이다. 특히 소아암의 경우 치료는 고사하고 진단조차 불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번 백혈병 완치가 갖는 의미는 더욱 특별하다. 이종욱펠로우십 10주년 기념 행사에서는 라오스 최초로 소아암을 완치한 다섯 살 타누 품마짜 어린이가 소개됐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2016년 4월부터 치료를 시작해, 3차에 걸친 항암치료 끝에 지난 8월 완치 판정을 받은 것. 항암치료 초기에 감염이 발생한 탓에 완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지금은 여느 또래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다. 이는 양국의 여러 기관과 관계자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현실이 그러하듯 라오스 역시 의료 기반은 취약하고, 중대질환 치료비는 감당하기 벅찰 만큼 고가다.

당연히 보통의 사람들이 제때 필요한 만큼의 항암치료를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타누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기념 행사 중 사례 발표를 통해 처음 타누의 병을 알게 됐을 때 방법이 막막해 치료를 포기하려 했었음을 고백했다. 하지만 항암제를 보내준 서울대와 역량 있는 담당의사 덕분에 아들을 살릴 수 있었다며 KOFIH에게 가슴 먹먹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타누를 치료한 담당의사 소네펫 사이소릭노 씨는 KOFIH의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 2016년 서울대에서 소아혈액종양관리 연수를 받고 2018년에는 임상과정에 참여한 전문의로,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그의 존재는 희망과 마찬가지로. 타누와 더불어

소아암을 완치한 타누(가운데)와 담당의사 소네펫 사이소릭노 씨(왼쪽), 타누의 어머니 께오 씨(오른쪽)



신장질환을 극복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간 시바이



- 4, 5, 6. 이종욱펠로우십 10주년 기념 포럼에서 연수 소감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참가자들
7. 라오스-이종욱펠로우십 10주년 기념 포럼 현장에서 참가자들
8. 라오스-이종욱펠로우십 10주년 기념 포럼에 함께한 참가자들의 기념사진
9. 라오스 시영쿠양 분싸이 도보견국장과 KOFIH 최원일 사무총장이 감사패를 들고 있다.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 연수생에 의해 새로운 희망을 찾은 사례는 또 있다. 열두 살 소녀 시바이가 그 주인공. 신세뇨관성산증으로 사지 기형이 생겨 몇 년 동안 누워서 지내다 KOFIH의 도움으로 지난 2016년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이종욱펠로우십 연수생의 치료 노력과 서울대와의 협진이 더해진 결과 지금은 스스로 걷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만큼 증세가 호전됐다.

이종욱펠로우십, 지식을 잇고 또 있다

라오스는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참여한 국가다. 수료한 29개국의 전체 840명 가운데 159명이 라오스의 의료진이다. 그만큼 성과도 다양하다. 기념 행사의 연수 소감 발표자로 선 국립아동병원 소아중환자실 의사 윌라폰 씨는 한국에서의 교육 덕분에 소아 중심정맥관 삽입 기술을 라오스 병원 중 유일하게 도입했으며, 심폐소생술 교재를 라오스어로 번역해 전국 의사들에게 배포함으로써 많은 어린이를 살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라오스의 어린 생명은 지금 순간에도 이들에 의해 희망을 싹틔운다. 김정숙 여사와 캄똥 여사, 레이코 여사는 기념 행사가 끝난 후 서울대 신현영 교수의 안내에 따라 소아암 병동을 방문해 입원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전했다. 더불어 라오스의 모든 어린이가 아프고 고통 없이 밝게 자라기를 기원한 김정숙 여사. 그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일단 밀고 나가야 한다’는故 이종욱 총장의 명언을 언급하며, 건강하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노력할 것임을 피력했다. 기념 행사 이튿날에는 ‘라오스-이종욱펠로우십 10주년 기념 포럼’이 열려 프로젝트의 현황과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라오스 보건부의 분공 장관은 “KOFIH 협력 사업이 라오스의 1차 보건의료체계 강화에 힘을 실어주었다며, 앞으로 보건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각지대에도 충분한 인력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외에도 주 라오스 한국 대사와의 면담, 라오스 보건부 장관 예방, 라오스 보건부 의료물자공급센터 및 국립의과대학병원 건축부지 방문 등으로 이어진 라오스에서의 일정. KOFIH는 생생한 현장을 영상으로도 담아 다큐멘터리(가제: 아세안 생명 프로젝트 - 착한 의료 현장을 가다)로 방영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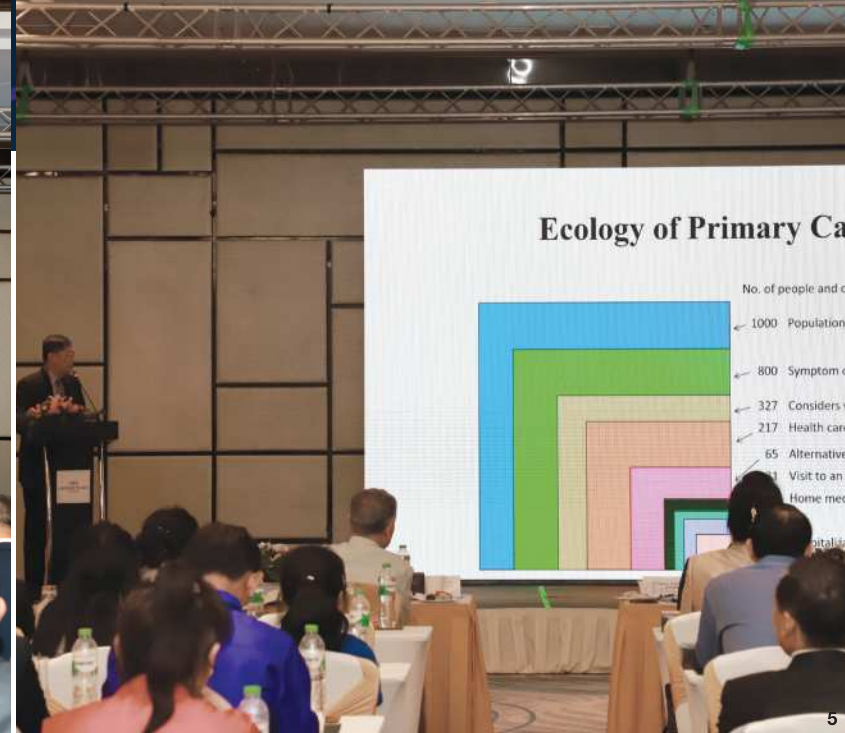


4



7





힘차게 현재진행 중, 더 기대되는 미래

KOFIH가 라오스 보건부와 협력 사업을 시작한 후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쌓였다. 금액으로 보자면 무려 360억 원 규모다. 사업의 면면도, 이뤄낸 성과도 역시 독보적이다.

2016년부터 6년을 바라보고 시작한 모자보건중심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은 북동부의 2개 도, 시엥쿠앙과 후아판의 모자보건 서비스 이용률을 상승시켰다. 또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라오스 최북단에 위치한 탓에 국제기구 등의 지원이 전무한 풍살리 지역에 모자병동을 건축하고 산부인과 관련 및 통계자료와 보건정보체계 운영 교육을 실시한 것도 반가운 성과다. 특히 이곳은 보건의료 상황이 매우 열악해 라오스 보건부 장관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미래를 내다본 신규 사업도 눈에 띈다. 연면적 1,040㎡에 달하는 라오스 보건부 산하 의료물자공급센터 건물이 지난 7월 시공에 착수한 것. 2020년 건축이 완료되면, 이곳은 라오스 전체 17개 도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라오스 감염병 진단 및 검역체계 구축, 국립의과대학 운영관리 컨설팅 등도 신규 사업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기초부터 쌓고 다지기를 반복한 결과는 한국과 라오스 간의 신뢰를 두텁게 하고, 라오스의 의료수준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가치 있다고 믿는 것에 몰두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 테다. 그래서 KOFIH는 움직이고 또 움직인다. 모두의 눈에 삶이 근사한 선물과 같이 비치도록, 곁에는 오랜 동행, 라오스와 함께다.





열정과 정성으로 새길을 열다

도움의 손길이 간절한, 더 나은 세상이 있어 KOFIH는 어제에 머무르지 않는다. 애뜻함과 애정이 깊을수록 KOFIH는 강해졌으며, 27만 지역민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은 진심으로, 정성으로 달아가고 있다. 미얀마 양곤주 주민을 위한 1차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에 여념 없는 KOFIH 미얀마 사무소의 하루를 안중소 소장을 통해 구성해보았다.



09:00 원거리 클리닉 & 산모 방문 진료

이른 아침, 양곤시 레구 준갈레이동 짜옥아이 마을에서 현지 주민을 위한 원거리 클리닉이 열렸다. 부지런한 마을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분주히 모여들었지만,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며 차례를 기다린다. 평소 검진받는 것이 어렵기에 주민들은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주민들에게 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아픈 이들을 치료해주며 더 지원할 것은 없는지 세심히 살핀다. 그렇게 양곤시 주민들과 한결 가까워졌다.

원거리 진료는 약 2개월마다 1회씩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총 2,871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이후, 산모 검진이 쉽지 않은 소외 지역으로 이동하여 직접 산모들을 만나고 현 상태를 체크했다.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주며 고마워하는 산모들의 모습에 안 소장은 되려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들의 시린 손을 맞잡고 용기와 응원을 보냈다. 아픔 없이 새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나길 바라본다.



짜옥아이 마을에서 진행된 원거리 클리닉



13:00 식수 위생 교육

점심을 먹고 마가와디 기초교육중학교로 이동했다. 학생들의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고 기초보건, 위생 인식 개선을 위해 2, 3,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식수 위생 교육과 손 씻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올바른 손 씻기 습관을 익히며 즐거워한다. 물탱크나 우물, 세면대 등 교내 수도시설 지원 현황도 꼼꼼히 모니터링하며 설비에 문제점이 없는지도 거듭 살폈다. 모쪼록 꿈나무들이 깨끗한 물로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이다.



메가와디 기초교육중학교 식수위생교육에 참가한 학생들



15:00 양곤 어린이병원 방문

양곤 어린이병원에는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수료한 연수생들이 소아과 전문의로 활약하고 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소아과를 방문하여 현업 상황을 체크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눴다. 조금씩 나아지는 어린이병원의 기분 좋은 변화에 보람과 감동이 가득해진다.



양곤 어린이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우와 가족들

16:30 레구 타운십 병원 방문



매주 수요일에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이 있다. 오늘은 수요일, 비전염성 질병 예방 활동을 위해 레구 타운십 병원을 찾았다. 아침 신체 운동과 영양 지원, 진료 및 검진 활동을 살피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산후 관리 지원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병원 관계자와 회의를 했다. 지난해에만 14,738명의 어르신이 검진을 받고 건강을 살폈다.



레구 타운십 병원에서 아침 신체 운동 중인 어르신들



레구 타운십 병원에서 산후 조리 중인 산모



레구 타운십 병원의 어르신 건강검진

18:00 사무소에서 회의 및 정리



부소장, 현지 직원들과 사무소에 모여 간략히 하루 일정을 정리하고, 내일의 업무를 공유한다. 지역민의 니즈를 좀 더 꼼꼼히 살피고, 보건의료체계 구축의 깊은 꿈을 함께 채우며, 더 넓은 사랑을 펼쳐 보일 것을 다짐한다.

KOFIH가 미얀마의 1차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에 집중한 지 어느덧 4년이 되었다. 새로운 지역에 손길을 내밀 때마다 미얀마는 어제보다 더 건강해졌고, 도움을 전할 때마다 미얀마의 주름은 조금 더 펴졌다. KOFIH는 변화와 도전을 거듭하며 흔들림 없이 미얀마 지역민을 돕고 그들을 응원할 것이다.

MINI INTERVIEW

● 안종소 | 미얀마 사무소 소장

더 많은 이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2018년 11월 말, 저는 이곳 미얀마에 파견되어 양곤주 내 레구타운십을 대상으로 한 1차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 운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간 진행된 사업을 기반으로, 2020년부터는 확대된 3개 타운십을 대상으로 1차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을 향후 6년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얀마 정부의 수요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추후 신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더 많은 미얀마 지역민들이 KOFIH와 함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상의 소리에 귀를 열고, 마음을 나누고 진심을 전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키워내는 진심이 닿다

지금보다 건강하고 희망적인 미래가 내다보이도록 KOFIH는 집중했다. 더 많은 캄보디아인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길을 넓히고, 환하게 불을 밝히는 실질적 지원에 말이다. 이미 꽤 많은 결실을 맺은 통합모자보건증진사업이 지금 캄보디아 보건 환경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바탐방 도병원 의공센터 개소식 현장

Cambodia

보건 환경의 변화가 피부에 와 닿도록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캄보디아에서는 특별한 선택일 수 있다. 이를테면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고, 출산 후 산모가 전문의에게 검진을 받으며, 태어난 아기에게 백신을 맞는 일들 말이다. 하지만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데다 소득 수준에 비해 병원비가 너무 비싼 캄보디아의 병원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많은 산모와 태아 그리고 아기의 건강에 위험 신호가 켜진 상황.

KOFIH는 지난 2011년부터 통합모자보건증진사업에 팔을 걷어붙였다. 어느덧 시행 9년째, 의미 있는 도전과 반복들이 만들어낸 크고 작은 변화는 바탐방, 파일린, 뽏삿 지역 170만 명의 삶과 연결됐고, 진일보를 위한 단단한 토대가 되어주었다.

가장 기본적 시설인 병원과 보건소부터 달라졌다. KOFIH의 지원으로 산모대기실이 생기거나 개보수를 마친 바탐방의 보건소가 모두 여덟 곳. 이전에 없던 소각장이 설치된 곳도 있다. 또한 바탐방의 유일한 3차 종합병원인 바탐방 도병원에는 의공센터가 신축돼 지난

9월 개소식을 열었다. 그동안은 기자재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 환경까지 열악해 의료가기를 수리하거나 보관하는 게 불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의공센터 신축으로 바탐방 도 병원의 의료수준이 한층 높아졌다.

지원을 넘어 마음까지 보듬는 진정성

공공의료 시설의 질적 성장은 캄보디아 정부의 과제이기도 하다. 그 일환으로 올해 처음 캄보디아 보건부 주최의 공공의료시설 국가경진대회가 열렸다. 대회에서 1차급 병원 가운데 전국 1위를 수상한 곳이 뽏삿 내 바칸 전원병원. 이곳은 KOFIH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낡은 건물을 개보수하는 등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진 사례다. 이로써 모자보건 관련 서비스 질 역시 눈에 띄게 개선됐는데, 2020년 초 모자병동 완공을 앞두고 있는 등 추가적인 의료시설 개보수 지원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KOFIH가 뽏삿과 함께



바탐방 보건소 개보수 현장 전달식



바탐방 의공센터 개소식 및 보건소 개보수 기념식 참관객들

바탐방 도병원 의공센터 시찰



함께이기에 꿈꿀 수 있는 더 나은 미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 시너지는 극대화된다. KOFIH의 노력과 더불어 캄보디아 정부의 관리 능력,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이고도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KOFIH가 보건소 단위별로 개선 방안에 대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모성사망 주요 원인 파악 등 사례 분석 워크숍을 진행한 것도 그런 이유다. 특히 캄보디아 지원사업의 경우 현지 국립보건연구원과 공동으로 중간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 보건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KOFIH는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해 진행 중인 사업을 소개하고 보건분야 ODA 주요 현안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캄보디아 모자보건증진사업은 내후년이면 마무리된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캄보디아 국민의 보편적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예정이다. 어떻게 하면 모두가 망설임 없이 의료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인가, KOFIH의 큰 물음이 명료한 솔루션으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순간이다.

해 외 사 무 소 에 서 추 천 하 는 아 세 안 별 미

‘ 핫 해 핫 해 ’

다 채 로 운



미 식 천 국

더없이 ‘핫(Hot, 뜨겁다)하고 핫(Hot, 인기있다)한’ 아세안 음식은 생각만으로도 벌써 따뜻해지는 기분이다. 이국적인 문화에 저렴한 물가, 한국인의 입맛에도 착착 감기는 아세안의 별미는 다양함을 선사한다. 식도락의 천국 속에서 KOFIH 해외 사무소 임직원들이 엄선한 아세안 맛집 속으로 들어가보자.

Special Theme — 신남방 미식로드



라오스 사무소 양보민 부소장이 추천하는

전통 양념의 깊은 맛이 가득한

‘카오쏘이(Khao Soi),

팍뽕(Pak Boong, Morning Glory)’

루앙프라방 전통 양념으로 국물을 우려내 먹는 카오쏘이는 아들아들한 면발과 향이 깊으면서도 맵지 않은 얼큰한 육수의 조합이 일품입니다. 거기에서 데친 팍뽕을 반찬처럼 곁들이면 두 끼도 문제없답니다.

☎ 음식점 : 3 Euey Nong Restaurant

📍 주소 : Chao Anou Road, Vientiane, Lao PDR

☎ 연락처 : +856-20-56-563-632

미얀마 사무소 안종소 소장이 추천하는

얼큰한 국물이 매력인

‘산 카오 스웨(Shan khao swé)’

산 카오 스웨는 미얀마 소수민족 중 하나인 산(Shan)족이 즐겨먹는 쌀국수입니다. 산족은 음식에 참기름과 매콤한 고춧가루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 한국인의 입맛에 더없이 잘 맞는 현지 음식입니다.



베트남 사업담당 한신하 과장이 추천하는

촉촉한 월남쌈

‘Đặc sản Trần đặc biệt’과

일품 고기구이 비빔면 ‘Bún thịt quay’

Đặc sản Trần đặc biệt는 한국에서 즐기는 건식 라이스페이퍼가 아니라 건조 전 촉촉하고 도톰한 라이스페이퍼에 각종 신선한 채소와 돼지고기(우리나라 편육 느낌)를 넣고 독특한 다낭 전통 소스에 찍어 먹으면 일품인 월남쌈입니다. 튀기거나 볶지 않아 담백하며 더운 베트남 날씨에 잘 어울리는 보양식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쌀국수는 국물이 있는 양지머리 쌀국수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현지에는 다양한 조리형식의 쌀국수가 존재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채소는 물론 견과류와 다양한 소스가 일품인 고기구이 비빔면인 ‘Bún thịt quay’도 맛보시면 쌀국수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실 겁니다.

월남쌈

☎ 음식점 : Đặc Sản Trần

📍 주소 : 1- 다낭 시, Phạm Văn Đồng

고기구이 비빔면

☎ 음식점 : Bún Mắm Bà Đông



캄보디아 사무소 장지숙 부소장이 추천하는

풍부한 코코넛 향에 반하는 ‘아목(Amok)’

아목은 생선 등을 카레와 섞어서 찐 것에 코코넛 크림을 얹어서 먹는 요리입니다. 부드럽고 담백한 생선살과 코코넛 소스가 어우러져 누구든 부담 없이 즐기기에 좋은 캄보디아 전통 음식이기에 추천합니다.

☎ 음식점 : Cold Night

📍 주소 : Street 300, Krong Battambang



필리핀 사업담당 홍진희 차장이 추천하는

담백함과 고소함이 입안 가득 ‘라푸라푸(Lapu - Lapu)’

라푸라푸는 ‘필리핀의 다금바리’라고 불리는 생선으로 찜이나 튀김, 구이로 조리하여 다양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라푸라푸 튀김은 담백함과 고소함이 가득합니다. 필리핀 출장자들에게 사랑받는 밥도둑으로, 고단한 일정을 마치고 먹으면 힘이 부쩍 나는 최고 별미입니다.

☎ 음식점 : Kalui Restaurant

📍 주소 : 369 Rizal Avenue, Barangay San Miguel, Puerto Princesa, 5300 Palawan, Philippines

☎ 연락처 : +63-905-401-8362



2019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 최고위과정 환영식

세계 보건의료시스템의 핵심 리더를 양성하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 최고위과정'이 지난 8월 말 7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특히 올해 최고위과정에서는 현장 중심형 프로그램을 도입해 참가 연수생들이 우리나라 역사와 보건의료 시스템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보건의료 정책, 교육, 경영, 산업 등을 포괄하는 통합교육을 제공하여 연수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로우십 프로그램 최고위과정 환영식

woo Fellowship Program
for High-level Officials
ony
of Korea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2019 Dr LEE Jong-wook
Fellowship Program
Training Course for
High-level Officials

2019년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 최고위과정 환영식에서 인사말을 전하는 추무진 이사장



2019년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 최고위과정 참가 연수생들과의 기념 사진

기대와 희망이 어우러진 자리

KOFIH는 세계보건기구(WHO) 제6대 사무총장을 지낸 고(故) 이종욱 박사의 정신을 계승해 2007년부터 해외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인력의 교육훈련과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각국의 의료진과 정부관계자 등을 초청해 한국의 보건의료를 소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3년 차에 접어든 최고위과정은 초청연수인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 가운데 협력국 중앙보건부 국장급 이상, 상급 종합병원 원장급 이상을 연수대상으로 한다.

지난 8월 27일 열린 환영식에서 추무진 이사장은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서로 간의



국내 제약회사 견학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견학



리더십 워크숍에 참석 중인 연수생들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더불어 글로벌 보건의로 네트워크는 각자의 국경을 넘어 세계 보건의로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환영사를 듣는 연수생들의 표정에서 높은 기대감과 진지함이 엿보였다. 연수생 개인의 역량 강화를 넘어 국가 간 협력을 도모하고 함께 발전하자는 추무진 이사장의 환영사는 자국 의료시스템의 발전을 꿈꾸는 연수생들의 마음에 의욕과 투자를 불러일으켰다.

개발도상국 보건의료계에 불어오는 한류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하는 글로벌 파트너’라는 KOFIH의 비전을 보여주듯 환영식장엔 열정 넘치는 재단 관계자들이 있었다. 참여국의 전통의상을 입은 그들은 환영식장의 분위기를 한층 경쾌하게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였다. “연수생들을 위한 재단 직원들의 아이디어예요. 우리가 자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통역을 도우니 반응이 너무 좋네요.” 이종욱연수부 담당자가 말했다. 사뭇 진지할 수 있는 환영식이 통통 튀는 직원들 덕분에 생기가 넘쳤다.

시간이 흐를수록 연수생들의 얼굴에 미소가 퍼져나갔다.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에 참가한 국가는 가나, 라오스, 미얀마,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케냐, 탄자니아, 필리핀으로 14개국 총 17명의 보건 분야 고위급 인사가 참석했다. 인도네시아 연수생 겐마씨는 답사에서 평소 관심 많던 한국 문화와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이들은 일주일간 의료인력 양성제도, 질병관리 정책, 첨단 의료산업 육성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올해 최고위과정의 특징은 ‘현장 중심형’ 프로그램이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질병연구본부, 서울대학교 병원 및 의과대학, 제약회사 등 생생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발전역사와 보건의료 시스템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17명의 고위급 연수생들은 각국에서 지속가능한 정책변화 및 병원운영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 세미나에서 토론 중인 연수생들

MINI INTERVIEW

● 인도네시아 겐마 아시아니 이브라힘
(Dr. GEMA ASIANI IBRAHIM) 차관(Secretary) | 보건부 의료위원회

이종욱펠로우십 최고위과정으로 꿈꾸는 밝은 내일

한국을 매우 좋아하고, 평소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던 차에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선진화된 보건의료 분야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보건의료 부문에 적용이 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인도네시아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종욱펠로우십 최고위과정에 참여하게 된 만큼 우리에게 부족했던 점을 배워 인도네시아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한층 두터운 친목을 다지며 발전해 나갔으면 합니다.



열정들이 모여 꿈을 키우다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모자보건 관계자 국내 초청 워크숍

하늘 가장자리에 가을이 곱게 물들어가는 10월 마지막 주,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모자보건 관계자 26명이 한국을 찾았다. 그들은 5박 6일간 한국에 머무르며 한국의 모자보건 정책 및 한국 보건의료 ODA 현황을 살펴보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선진 의료시스템을 체험하고 KOFIH 구성원들과 교감할 수 있었다. 이로써 모자보건사업의 변화와 혁신이 절실한 싼남방 국가에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양방향 소통은 한층 깊어졌다.



서초모자보건지소에서 수유방을 둘러보고 있는 참가자들



서초모자보건지소의 영양키움방에서 영유아 이유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참가자들

한마음 한뜻으로 Learn by doing

지난 10월 29일 초청 워크숍이 시작된 첫날,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모자보건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KOFIH 본사에는 분주함과 더불어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다. 환영식이 열리기 전, 호기롭게 서로 인사를 건네는 참가자들과 KOFIH 임직원들은 서로 반가운 웃음을 지었다. 본사의 세심함 덕에 참가자들은 더없이 편하게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워냈다. 3국 의료진을 반갑게 맞이한 추무진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지역의 모자보건 사업 등 개발협력사업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재단에서 더 많이 신경 쓰고 지원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전하며



워크숍 환영식에서 인사말을 전하는 추무진 이사장



캄보디아의 모자보건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설명 중인 발표자

의료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와 협력국의 지속가능한 개발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추무진 이사장은 참가자들에게 기념품을 전하며 따뜻한 격려도 잊지 않았다. 이어 참가자들은 나라별 재단 모자보건 사업의 추진 현황·성과·향후 계획 등을 발표,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열악한 지역에 모자병동 건축·개보수 및 분만의료장비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오후에는 연세대학교 서경 교수의 '글로벌 모자보건체계' 강의를 열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고, 본격적인 역량 강화 다지기에 나섰다.

이튿날에는 서초모자보건지소와 안산상록수보건소 견학 등 보건의료 현장 방문 일정이 더해져 참가자들은 한국 선진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게 되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 특히 서초모자보건지소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임신부와 영유아 특화 보건소로, 건강전문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어 3국에 훌륭한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주었다. 워크숍 기간에는 '한국 보건의료제도 현황'과 '한국 비감염성질환(NCD) 대응체계 구축 현황', '한국 응급의료체계 및 서비스 발전 역사' 등의 심도 있는 강의와 그룹별 토론이 펼쳐졌다. 마지막 날, 참가자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경복궁 탐방을 통해 고궁의 고요함과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6일간의 일정을 함께하면서 어느새 끈끈한 동료애와 웃음이 가득해진 참가자들은 기본과 열정을 앞세우며 앞으로의 더 힘찬 질주를 예고했다.

배움은 늘리고, 자부심은 올리고

모자보건 사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보건의료 체험과 노하우를 제공하여 보편적 의료 달성에 기여하려는 KOFIH의 활동은 신남방 국가에 대한 관심과 KOFIH의 헌신이 빚어낸 아름다운 결과물이다. 길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이번 워크숍을 통해 참가자들은 배움은

늘리고, 자부심은 올리는 값진 시간을 만들었다. 직접 느낀 한국과 보건의료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더 많은 신남방 국가 의료진에게 이어지고, 다시 환자에게도 전달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은 저마다 KOFIH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선진보건의료 현장 탐방을 통해 서로 교감하고, 정(情)까지 나누게 된 참가자들은 모자보건사업의 선순환을 지속적으로 이뤄낼 것이다. 다양한 시각과 좀 더 깊어진 전문성과 더불어, 기본에 충실하겠다는 뼈대 위에 차곡차곡 열정을 덧입히겠다는 그들의 내일은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지 않을까.

MINI INTERVIEW

● 라오스 Dr. Khamchack Mahanam, Deputy Head of Hygiene and Health Promotion Division | 시엥쿠앙 도보건국

체계적인 모자보건사업으로 더 기대되는 내일

그간 KOFIH와 모자보건 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엥쿠앙의 모자사망을 감소라는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오지 마을의 원거리 진료를 통해 환자의 건강 정보를 취합해서 데이터화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자 관리가 이뤄져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외딴곳에 사는 몽족(라오스의 소수민족)의 사망률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보건의료 인력 교육과 의료장비 지원 등에 아낌없이 힘써 준 KOFIH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워크숍으로 시엥쿠앙의 모자보건 증진과 서비스 질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남방 국가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베트남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신남방 정책을 천명하면서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베트남은 1960년대 우리나라 전투부대가 파병되었던 국가라는 과거의 역사에 더해서 삼성전자 휴대폰 생산 기지와 축구 감독 박항서의 활약이라는 현재의 관계가 어우러져서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글. 박기동
(세계보건기구 베트남 상주대표)

베트남 이해하기

베트남은 벵족의 나라이다. 전체 인구 약 9천 7백만 명 중 85%가 벵족이고 나머지 15%는 53개의 소수 민족이다. 벵족은 홍강 삼각주(Red River Delta) 지역에서 5,000년 전부터 문명을 이루면서 살아왔는데, 점차 영역을 확장해서 19세기 초반 원 왕조(Nguyen Dynasty) 시기에 현재의 베트남에 해당하는 영토를 확보했다. 베트남은 인도차이나반도의 동쪽 끝에 해안선을 따라서 길게 펼쳐진 이 나라는 북에는 중국, 서쪽에는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대륙의 큰 나라인 중국과는 2,000년 가까이 국경을 마주하면서 크고 작은 전쟁을 버텨내면서 독립 국가를 유지해온 자부심이 있다. 베트남의 문화와 전통 의학은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19세기 중반 서구 열강이 아시아 침탈 시기에 베트남은 현재의 라오스, 캄보디아와 함께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았다. 프랑스 식민 지배 동안에 베트남은 중국 문자(Chinese Character) 사용을 중단하고 로마자를 원용해서 개발한 현재의 Vietnamese 알파벳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공중 보건 영역에서는 프랑스 식민 정부가 설치한 Pasteur Institute를 중심으로 한 전염병 관리 체계가 도입됐다. 제2차 세계대전 종료와 함께 호찌민이 이끄는 베트남 공산당이 독립을 선언하였는데 프랑스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서 10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남북으로 분단이 되는

상황을 감수하면서 독립을 쟁취했다. 이후 20년간의 남북 베트남의 긴장 관계와 미국이 참전한 전쟁을 거쳐서 1975년에 통일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탄생했다. 소비에트 러시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국영 무상의료 제도와 단과 전문 중앙 병원 등이 확립되었다. 많은 국영단과 병원들이 1969년에 설치되어 2019년에 50주년 기념 행사가 여러 병원에서 열리고 있다. 10년간의 고립과 경제 제재 기간을 거쳐서 1986년에 시장 개방과 개혁을 선언하면서 미국, 일본, 서유럽의 자본과 문화, 의료 기술 등이 도입됐다. 1992년에 헌법을 개정해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을 수 있고 사회의료보험 도입의 길을 여는 등 국영무상의료제도를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이후 30년 동안 사회화(Socialization), 민관 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등으로 불린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영 병원에 민간 의료 자본의 투자를 허용하고,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확대와 함께 국영 병원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축소해왔다. 국영 병원 의사들에게 정규 근로 시간 이후에 개인 의원에서 진료를 허용하고 완전 민간 의료 시설과 사립 의과 대학의 설치도 가능해졌다. 그 결과, 병상 수 기준으로 아직도 95%의 의료기관이 국공립이지만 진료 행태는 민간 의료 기관과 별반 다르지 않은 현재의 베트남 특유의 의료 문화가 형성됐다. 민간 의료 자본이 투자되어 현대 의료 시설이 많은 대도시 국영 병원에 환자들이 몰려서 3시간 대기 3분 진료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의사들도 경제적, 비경제적 인센티브가 많은 대도시 국영 병원을 선호해서 사회주의 의료제도의 근간이 보건소 체계의 약화로 이어졌다. 사회의료보험 가입률은 87%까지 늘었는데 의료비 증가 추세가 의료재정 확장 속도를 크게 앞질러 2016년부터 사회보험재정이 당기 적자를 기록해서 사회의료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적색 경고가 커졌다.



공적개발원조(ODA)에서 공적개발협력(Official Development Cooperation)으로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다. 하노이나 호찌민 등 대도시를 가보면 우리나라와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부유한 도시를 모습이지만 아직 개발도상국이다. 2019년 현재 1인당 국민 소득은 약 USD 3,000 수준으로 한국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한국이 USD 3,000를 통과한 시점이 1986~1987년인데 베트남의 여러 사회적인 문제는 1980년대 중반 한국이 안고 있었던 문제들과 유사한 것들이 많다.

의료제도의 문제도 비슷하다. 그러나 일부 영역에서는 1990년대 후반 한국 사회가 겪었던 문제들이 보이기도 하고, 한국과 동시대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문제들도 있다. 베트남은 아직 젊고 역동적인 사회지만 이미 빠른 속도로 노령화하고 있다. 6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12%를 넘어섰는데 이는 한국의 1999~2000년 수준이다.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 오염의 문제는 한국과 베트남이 동시에 겪고 있는 건강 문제다. 베트남은 2035년 1인당 국민소득 USD 10,000 달성이 경제 개발 목표이다. 그때까지 성장 엔진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각종 개혁 조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의료제도도 중요한 개혁 분야다.

베트남은 한국이 병원을 지어주고 의료기기를 제공해주는 원조보다는 한국이 1980년대~1990년대의 성장기를 거치면서 의료제도의 각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왔는지의 경험을 공유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한 한국의 의료제도의 여러 측면을 벤치마킹하려고 한다. 여기에는 의사 면허 제도, 의료보험 심사 평가 제도,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모형 등이 포함된다. 신남방 정책에서 한국은 베트남을 과거의 원조 대상 국가에서 미래 지향적인 공적 개발 협력 대상 국가로 관계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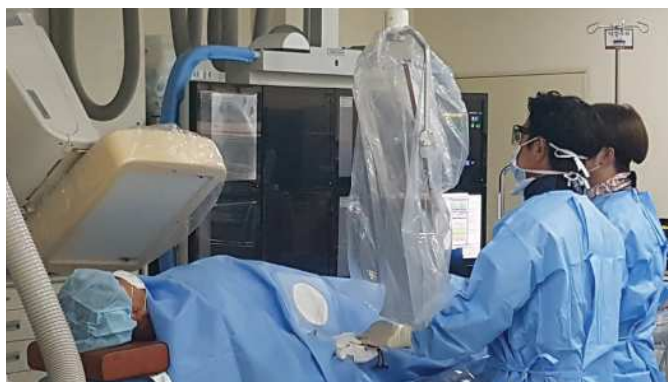
함께 꿈꾸고, 뜨겁게 도전하며 달리는 2019 KOFIH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힘차게 달려온
KOFIH의 빛나는 지난날을 돌아봅니다.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초청진료 실시

KOFIH는 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72명의 사할린 1세대 어르신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만성질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정밀검사 및 치료를 지원했다. 올해는 의료법인 정선의료재단 온중합병원과 협력하여 사할린 잔류 1세대 어르신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 2차 방문단으로 초청해 개별 맞춤형 진료를 진행했다. 추무진 이사장은 “오랫동안 고국을 그리워하셨을 어르신들의 희생과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고국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건강을 찾고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 통합 입교식 개최 및 오리엔테이션

지난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10개국 49명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2019년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 통합 입교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올해는 전 세계 15개국에서 108명의 연수생이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의 국내 연수에 참여했다. 특히 올해 KOFIH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 및 비수도권 연수생 선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입교식 행사는 지난 8월 2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고, 1차로 입국하는 10개국 49명의 연수생과 보건복지부 강도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국내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리엔테이션 중 각국의 연수생들은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적응 능력을 키우고 한국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마련했다.



KOFIH 창립 13주년 기념식 개최

지난 8월 22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8층 대회의실에서는 창립 13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 행사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개회사, 보건복지부 및 초대 총재 축하, 노사가 함께한 윤리 인권 경영 선언문 낭독,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KOFIH 이사장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창립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강도태 기획조정실장, 박종화 초대 총재 등 재단 고문위원 및 자문위원, 보건의료계 인사와 재단직원 등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추무진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 덕분에 재단이, 글로벌 보건의료파트너로서

지난 13년간 다양한 사업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전하며 “앞으로 재단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윤리인권 경영체계를 수립·이행하고, 혁신을 통해 국민편의를 증진하며, 재단 사업에 대한 국민참여를



유도하여 국민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단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이 이어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이사장 표창 수여식이 열렸다.

국제 및 남북 보건의료 위해 전략적 상호협력 파트너십 강화

지난 8월 27일 KOFIH,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 의사협회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회의실에서 ‘국제 및 남북 보건의료 기관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KOFIH 추무진 이사장과 세 기관이 체결한 이번 업무협약은 ▲ 국제 및 남북 보건의료사업 정보공유 및 사업발굴, ▲ 국제 및 남북 보건의료 인적교류 등 공동사업추진, ▲ 국제 및 남북 보건의료 학술(포럼 또는 세미나) 교류, ▲ 외국인근로자 인도적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해외 긴급구호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협력 분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동 협약을 근거로 향후 KOFIH와 세 단체는 국제 및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정보공유, 사업발굴, 인적교류 등 상호협력하며, 국내외 보건의료 활동인 외국인근로자 인도적지원, 해외 긴급구호 등을 연계 추진하여 글로벌 보건의료 대응에 전문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제5회 국제보건 ODA 포럼 공동 개최

지난 8월 27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한국국제협력단-국제보건의료학회는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 국제보건 ODA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관 간 보건 전문가의 사업수행 노하우 등이 국가 차원에서 축적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보건분야 ODA에 관심 있는 국민들과 정보 공유를 도모하고자 개최됐다. 이번 제5회에는 ‘국제보건분야 Multi-Sectoral Approach’를 주제로 하여, KOFIH에서는 라오스와 에티오피아의 지원 사례를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섹터 간 협력을 토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지속가능개발 달성에 일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오스의 경우 ‘보편적 건강 보장 달성을 위한 다분야 접근 기반/부문별 접근’을 통해 부문 간 협력(모자보건, 의료기기, 민관협력 등) 사례를 발표했으며, 에티오피아의 경우 ‘KOFIH



에티오피아 모자보건 증진 사업사례’를 토대로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모자보건 사업이 추후 Multi-Sectoral 접근을 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주한 아시아 대사 초청 간담회

지난 8월 29일 주한 아시아 대사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는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 주한 아시아 대사 6명을 비롯해, 한-아세안 센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보건복지부, 재단 임직원 등 총 3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재단 및 재단사업 소개와 향후 협력 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추무진 이사장은 “각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관 관계자 여러분들과의 면담을 통해 앞으로도 재단과 아시아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단 아시아 사업 대상 대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해당 국가들과의 사업 발굴 및 진행 협조를 위한 네트워크가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외국인근로자 한마당



지난 9월 8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019년 외국인근로자 한마당이 열렸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주요 내외빈 참여 화합한마당, 아시아 문화한마당 ‘국가별 전통문화 행사’, 한국가요 어울림 한마당 ‘K-POP’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KOFIH는 부스를 마련하여 내건강지킴이와 재단 브로슈어 및 예방접종 관련 리플릿을 배부하여 재단 홍보에 힘썼다.

보건의료 전문 기자 간담회 개최

지난 9월 26일 KOFIH에서 주최한 보건의료 전문지 기자 간담회가 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재단의 인지도 제고 및 소통의 창을 확대하고자 열린 기자 간담회에는 내외부 관계자 32명이 참가했다. 간담회는 이종욱 기념관 관람 및 홍보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재단 사업 추진 현황 소개, 지난 1년간의 사업 성과, 하반기 주요 행사 및 향후 계획 발표와 함께 질의응답이 활발히 진행됐다. 추무진 이사장은 “재단은 많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인도주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성과도 중요하지만 재단 사업과 존재 의미에 대해 우리 국민의 공감대와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기자 여러분들과 우리 재단이 좀 더 이해하고 돕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9년 KOFIH Letter 여름호를 읽고 많은 분들이 엽서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좋은 말씀, 소중한 의견을 기억하며 더 나은 KOFIH Letter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KOFIH Letter 여름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강영숙 (인천 부평구)
공준식 (충북 보은군)
김수지 (인천 연수구)
김승용 (경기 안양시)
김은미 (대구 수성구)
박수빈 (경남 통영시)
윤자영 (경기 하남시)
이시현 (서울 영등포구)
이정숙 (서울 관악구)
이현정 (인천 남동구)

※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원고 접수

<KOFIH Letter>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독자엽서에 자유롭게 써주세요.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07, 3층
KOFIH Letter 사보 담당자 앞

함께 만드는 KOFIH Letter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이정숙(서울 관악구)

<KOFIH Letter>의 아프리카 지역사업 특집호를 읽으며 그동안 아프리카에 대해 가졌던 편견과 선입견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6·25 때 우리를 도와준 은인의 대륙을 넘어 가난과 질병에 허덕이는 대륙이라는 인식을 넘어, 함께 성장하는 공생의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KOFIH를 비롯한 정부·기업·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은미(대구 수성구)

이번 여름호에선 다양한 나라와 인종, 거대한 대륙, 풍부한 천연자원 등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품고 있는 아프리카에 보건으로 협력사업으로 사랑과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는 KOFIH를 만나봤습니다. 현재 지원하는 10여 개의 국가를 넘어 아프리카 전체가 질병 없는 건강한 대륙으로 꽃 피울 수 있도록 더욱 헌신과 노력하는 KOFIH가 되어 주세요.

이시현(서울 영등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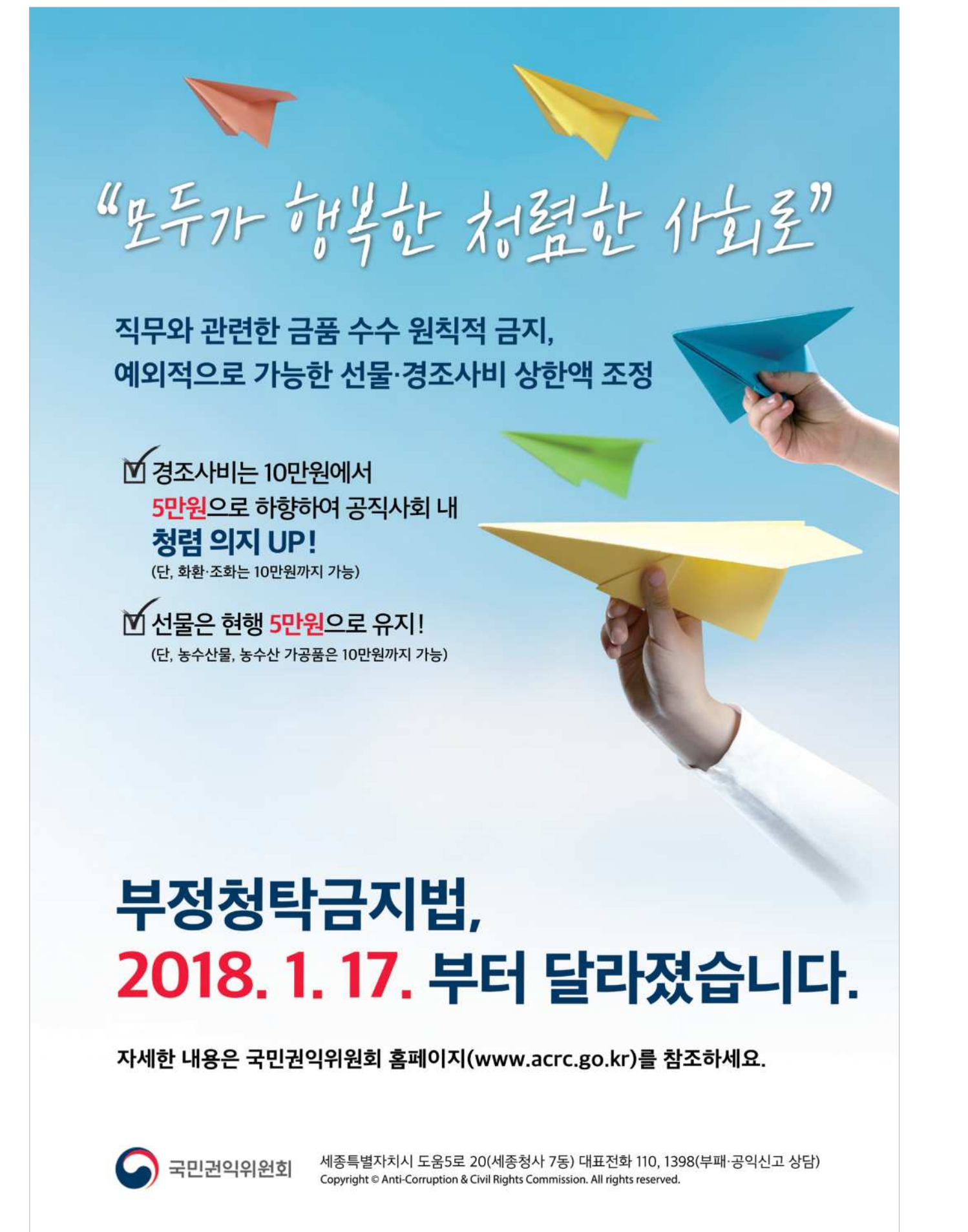
보건환경이 매우 열악한 아프리카에서 KOFIH가 이룩해 낸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인력 및 물자 지원을 넘어, 아프리카 주민들의 건강증진 인식 개선 등 근본적 대책이 보다 큰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해 봅니다. KOFIH를 응원합니다!

윤자영(경기 하남시)

지도에 그려진 프로젝트 맵을 보니 정말 가슴 벅차웁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니 정말 감동입니다. 우리도 원조국에서 타국을 돕는 국가가 되어 지구촌의 당당한 일원이 되었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KOFIH가 많이 노력하고 애써주세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전 세계의 건강을 지키는 대한민국, 뿌듯합니다.

이현정(인천 남동구)

분쟁, 가난, 질병, 기후 등의 원인으로 오랜 세월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땅 아프리카에서 희망을 품은 씨앗을 싹틔우기 위해 매일 매일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KOFIH의 철학과 노력이 참 대단하고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의 긍정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는 인류애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청렴한 사회로”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원칙적 금지,
예외적으로 가능한 선물·경조사비 상한액 조정

☑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하여 공직사회 내
청렴 의지 UP!
(단,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

☑ 선물은 현행 **5만원**으로 유지!
(단,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

부정청탁금지법, **2018. 1. 17. 부터 달라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세요.



행정자치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사전에 예방하세요!



이용자 주의사항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개인정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삭제**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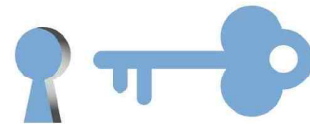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꼭 필요한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 후 업로드하세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홍*동	123456-1	010-△△△△-1234
김*훈	123456-2	010-△△△△-2345
박*일	123456-3	010-△△△△-5678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은
비밀글로 설정하세요.



운영자 주의사항

게시판 운영 시 **개인정보
노출주의에 대해** 안내하세요.

개인정보 게시에 대한 주의안내

게시판 내용 입력 및 첨부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FAQ

제목	내용
번호	제목
122	[스마트폰정보보호] 스마트폰이 도청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21	[스마트폰정보보호] '스파이웨어' 설치되었는지 확인 및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20	[스마트폰정보보호] 스마트폰 보안 자가점검 앱 '문키패(구, S.S Checker)'로 확인한 뒤
119	[스마트폰정보보호] 스마트폰 보안 자가점검 앱 '문키패(구, S.S Checker)'란 무엇인가?
118	[스마트폰정보보호] 무리나라는 모바일 악성코드로부터 안전한가요?

**관리자페이지는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 관리자페이지의 주소에 추측가능한 단어 (admin, manager 등)사용 자제하기
- 관리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IP 제한하기
- 외부접속이 필요한 경우 전용선이나 가상사설망(VPN) 이용하기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하세요.



- 검색사이트에 내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있는지 점검하기
- 홈페이지 변동(통합, 개선) 시 점검하기
 1. 회원 식별자로 개인정보 쓰지 않기
 2. 웹 취약점 진단하기
 3. 시큐어 코딩 준수하기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홈페이지

www.privacy.go.kr - 자료마당 - 지침자료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를 참고해주세요.

해외여행 시 이것만은 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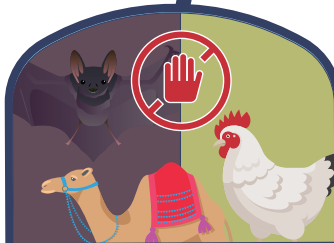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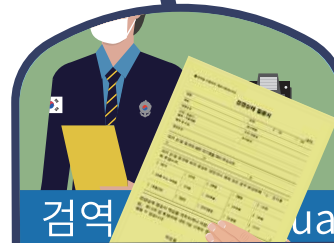
여행국가 감염병
발생정보 확인하기



출국 전 예방접종,
예방약, 예방물품 챙기기



해외여행 시
동물 접촉 피하기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하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귀국 후 감염병 증상
☎1339 신고하기



전기 절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



Q1

에어컨만 쓰는 것이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쓸 때보다 시원하다?

- 50℃의 물 500ml로 30분간 냉방효과 비교
 - 에어컨 단독(강풍) 사용 : 50℃→43℃ (7℃ ↓)
 - 에어컨(약풍) + 선풍기(미풍) 사용 : 50℃ → 28℃ (22℃ ↓)



Q2

에어컨 설정온도 26~28℃가 건강온도인 이유?

- 실내외 온도차 5℃ 이상인 상태에서 장시간 업무 시: 면역력 저하로 아토피 등 피부질환과 비염, 폐렴 등 유발 가능
- 적정 건강온도 : 여름(24~28℃), 겨울(18~20℃)



Q3

냉온수기의 온수 기능은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냉·온수 기능 모두 사용 > 냉수기능만 사용(전력소모 5배 발생)
 - 온수기능 대신 커피포트 사용 권장 (1리터 물 끓일 시 90Wh 소모)



Q4

하절기 장마철 제습기 사용, 전력 소모가 심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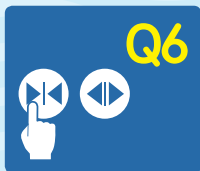
- 제습기 8시간/일 이용시, 한달 평균 약 80kWh 소비
 - 향초, 숯, 신문지 등을 이용하여 제습하는 것이 전기절약에 효과적



Q5

냉장고 내부를 꽉 채워도 전기요금에 전혀 영향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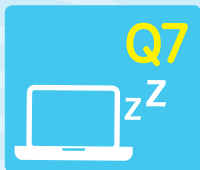
- 냉장실 내 10% 추가시 전기소비 약 3.6% (1.8kWh/월) 증가
 - 냉장실은 60%, 냉동실은 꽉 채우는 것이 전기절약에 유리



Q6

엘리베이터 닫힘버튼을 누르면 전력이 낭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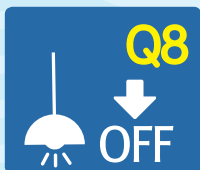
- 닫힘버튼 누를 시 미세한 전력소비 발생, 엘리베이터 운행 대비 미미한 수준
 - 닫힘버튼 없애는 것이 전기절약에는 크게 도움되지 않음



Q7

화면보호기가 전기 절약에 도움이 된다?

- 화면보호기는 화면만 어둡게 하며 전기절약에 크게 도움이 안됨
 - 모니터를 끄거나, 모니터 밝기를 70%로 사용하는 것이 전기절약에 유리



Q8

잠깐 나갈때는 전등은 끄지 않는 것이 좋다?

- 전등 스위치 온·오프는 전기사용량 증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
 - 잠깐 외출시라도 전등을 꺼주는 것이 절전에 도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꿈짜이 라이라이!(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아암을 완치한 다섯 살 소년이 수줍게 외친 말은 “꿈짜이 라이라이”.

이를 기억하며 KOFIH는 신남방 모든 국가의 꿈나무들이
건강하게 웃을 수 있도록 선명한 내일을 그려가겠습니다.

절실한 마음과 노력을 합쳐
삶의 가치를 더하는 더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